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조운주 · 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the Clothing Behavior based on the Perceived Somatotype by Korean Female Students

Youn Joo Cho · Jeong Ra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3. 8. 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somatotype on the satisfaction of somatotype and the clothing behavior. The respondents included 201 female student volunteers, aged 19 to 27, who were enrolled at university in Busan.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ree sections; perceived somatotype-self, satisfaction of somatotype and clothing behavior.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established the factors(the lower half the body, the upper half of the body, height, body-shape)as the perception of somatotype. In the clothing behavior, this study drew the 3 factor(aesthetics, fit, utility).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perceptions of somatotype-self are major determinant to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somatotype. But the perceptions of somatotype-self are major determinant to influence on the aesthetic factor among three factors.

Key words: Perception of somatotype-self, Satisfaction of somatotype, Clothing behavior; 체형 인식, 체형 만족도, 의복행동

I. 서 론

경제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졌다. 더구나 의식주의 서구화로 인하여 한국인의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의 척도도 점차 서구체형에 맞추어 가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박우미, 유명희(1998)의 지적처럼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슬림형을 추구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과민반응과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동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여성들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의복, 그 당시의 이상형과 표준형을 반영하는 스타일의 의복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을 때 신체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그 원인을 의복자체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돌리고 있다(Labat and Delog, 1990). 더구나 대부분의 부모는 어린이의 경우 정상체형보다 비만한 체형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여성인 여대생의 경우에는 마른형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 인식체형이 실제체형보다 신체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박우미, 1993; 정옥임, 1993; 구양숙, 추태귀, 1996). 이와 같이 여대생들이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허갑범, 1990), 비만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체중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표준체중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정상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저체중인 경우에도 자신의 체중에 대

하여 과제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체중과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체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Moses et al., 1989).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인식하는 체형이 실제 체형보다 신체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박우미, 1993; 정재은, 이순원, 1993), 의복행동과도 관련하여 신체에 만족하면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김양진, 1992).

그러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형 만족도 및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실제체형과 이상체형과의 차이(정재은, 이순원, 1993; 최유미, 손희순, 1997),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이영운, 강혜원, 1982; 임경복, 1997; 박우미, 2000; Shim et al., 1991),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와 관계(고애란, 강혜원, 1983; McLean, 1978)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체형의 분류를 RI(Röhrer Index)를 사용하여 신체 만족도나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어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과 실제 체형과의 차이가 심화되어(백희영 외, 2000) 여대생들이 인식하는 체형과 이에 따른 체형 만족도 및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우미(1993, 2000), 최유미, 손희순(1997), 박우미, 유명희(1998)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를 파악하였으나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인식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의복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김정숙(1984)과 김양진(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의 인식과 박우미(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복의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체형에 대한 인식을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 도출

1. 체형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체형 이미지는 스스로의 주관적, 감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고 체형 만족도는 자신의 체형 이미지에 의해 신체 각 부위에 대해 갖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느낌으로서(Horn and Gruel, 1981), 개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체형 이미지와 체형 만족도 그리고 외모에 대한 만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박우미, 2000).

Carron and Witzel(1975)은 객관적인 체형과 성격 태도와는 서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지만, 여러 학자들은 자신감은 체형과 신체에 대한 만족, 신체에 대한 고민 등의 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Tucker, 1982). Davis(1985)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신체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이상적인 체형과의 차이가 클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진다고 하였다.

박우미(1993)는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연구에서 의복착용자의 신체에 대한 의식은 의복의 선택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설계상, 둘레 등의 신체의형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의식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박우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은 신체에 대하여 현실과 이상형과의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의복행동 또한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박우미, 유명희(1998)는 여고생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의 지각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이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면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하였다. Secord and Jourard(1974)도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감정은 자아에 대한 감정과 일치하고 신체가 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을 때나 불안할 때 신체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많은 여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체형변화를 의복으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해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정삼호, 1988) 심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체형 만족도가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₁: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1}: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전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2}: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상반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3}: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하반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체형의 인식과 의복행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자신이 없을 경우 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의복을 통하여 체형의 단점을 감추어주고 장점을 강조하는 의복을 선호한다(中川早苗, 1989)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체형과 의복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복의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의복·외모·외모기준 간의 상관연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체에 대한 느낌이 의복 선호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다(Kasier, 1985). Labat(1988)은 신체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기성복 치수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박우미, 유명희(1998)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자아 존중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의복행동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황진숙(1998)의 연구에서도 추구하는 이상형 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의복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김정숙(1984)은 신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신체에 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이를 통해 부정적인 신체 자아개념을 극복하려는 의복행동이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백희영 외(2000)는 여대생들이 과학적인 근거없이 자기 체형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복착용이나 의복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경복(1997)의 연구에서 심미성 요인, 경제성 요인, 실용성 요인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의복행동이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₂: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2.1}: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심미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2.2}: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착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2.3}: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실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측정항목

체형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임경복(1997)의 연구, 백희영 외(2000)의 연구, 심정희(2003)의 연구와 최유미, 손희순(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종합하여 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너비,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팔길이, 넓적다리둘레(무릎위), 장딴지둘레(무릎아래), 다리길이, 키, 몸무게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① 매우 굵다/얇다/작다/많이 나간다에서 ⑤ 매우 가늘다/길다/크다/작게 나간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의해 신체 각 부위에 대해 갖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느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재은, 이순원(1993)에서 사용한 전신, 상반신,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① 매우 불만족에서 ⑤ 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복행동은 의복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정도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임경복(1997)에서 사용한 의복 만족도인 19개의 항목에서 몸에 맞는 정도(상의 및 하의로 구분), 디자인 및 스타일의 어울림, 자신에게 어울림(무늬), 소재의 질감(옷감)의 어울림, 활동성에 지장없는 정도(활동성), 입고 벗기에 편안함(편안함) 등 7개의 항목과 수선할 때 원형의 변화지 않음 등 8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① 전혀 아니다에서 ⑤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부산지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19세에서 27세에 해당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법으로 추

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2년 5월에서 7월 사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총 260부를 배포하여 212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11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01부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체형의 측정 자료와 설문자료는 SPSS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먼저, 자료의 특성과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신뢰계수(Cronbach's α) 및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가설 H₁과 H₂의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체형의 특성 및 만족도

응답자 체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키는 평균 161.9cm이며, 몸무게는 평균 49.5kg, 가슴둘레는 평균 81.8cm, 허리둘레는 평균 65.3cm, 엉덩이둘레는 평균 91.0cm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도의 국민표준체위와 비교하면 신장은 약간 크고, 체중은 약간 적다. 또한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국민표준체위보다 각각 0.3cm, 1.7cm 더 크며, 허리둘레에는 0.2cm 더 작게 나타났다. 신체지수의 평균값은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응답자의 실제계측치수에서 BMI와 RI의 평균은 각각 19.12, 1.23으로 국민표준체위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장,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모두에서 평균 2.5이하로 나타나 모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체형에 대한 인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신뢰성의 검토는 신뢰계수(Cronbach's α)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중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수의 채택기준을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으로 하였다.

<표 2>는 체형에 대한 인식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로써, 신뢰계수(Cronbach's α)가 .64이상으로 나타나 Nunnally(1978)가 제시하고 있는 신뢰성 평가기준인 .60을 상회하고 있으며, 요인의 수는 최종 4개가 추출되었다. 각각의 요인명은 사지둘레, 몸매, 신장, 그리고 상반신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4개 요인의 총분산율은 68.79%이다.

<표 3>은 의복행동의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결과이다. 의복행동은 신뢰계수(Cronbach's α)가 .68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의 수는 최종 3개로 추출하였다. 각각의 요인명은 심미성, 착의성, 그리고 실용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3개 요인의 총분산율은 78.16%이다.

<표 1> 응답자 체형의 특성 및 만족도

구 분	빈도(N)	평 균		만족도(평균)	표준편차
		실제치수	국민표준*		
키(cm)	201	161.9(5.0)	159.3(9.9)	2.21	1.27
몸 무 게(kg)	201	49.5(5.4)	49.7(5.4)	2.08	1.11
가 슷 둘 레(cm)	201	81.8(4.2)	81.5(4.7)	2.27	1.22
허 리 둘 레(cm)	201	65.3(5.3)	65.5(4.7)	2.42	1.35
엉덩이둘레(cm)	201	91.0(4.1)	89.3(4.0)	2.10	0.95
BMI**	201	19.12	19.59		
RI***	201	1.23	1.26		

()안은 표준편차

*국민표준은 1997년 국민표준체위자료로 18-24세 여성을 기준

**BMI<19: 수척, 19≤BMI≤24: 정상, 24≤BMI: 비만

***RI<1.2: 수척, 1.2≤RI≤1.5: 정상, 1.5≤RI: 비만

<표 2> 체형에 대한 인식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적재값	아이겐값	공통성	분산 설명력	알파값
사지둘레	넓적다리둘레(무릎위)	.808	3.890	.702	29.907	.753
	장딴지둘레(무릎아래)	.702		.623		
	아래팔둘레	.720		.647		
	위팔둘레	.659		.680		
몸매	목둘레	.850	2.580	.766	19.851	.790
	허리둘레	.830		.775		
	엉덩이둘레	.667		.705		
	몸무게	.629		.643		
신장	다리길이	.909	1.419	.834	10.913	.825
	키	.885		.824		
상반신	어깨너비	.750	1.054	.717	8.113	.645
	가슴둘레	.672		.596		
	팔길이	.607		.531		

<표 3> 의복행동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적재값	아이겐값	공통성	분산 설명력	알파값
심미성	자신에게 어울림(무늬)	.924	3.504	.917	43.801	.914
	소재의 질감의 어울림	.896		.843		
	디자인 및 스타일의 어울림	.890		.842		
착의성	몸에 맞는 정도(상의치수)	.931	1.646	.894	20.573	.892
	몸에 맞는 정도(하의치수)	.901		.902		
실용성	활동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	.851	1.103	.731	13.790	.682
	수선 시 원형의 변하지 않음	.736		.649		
	입고 벗기에 편안함	.528		.675		

3. 가설의 검증

1) 가설 H_{1.1}의 검증

가설 H_{1.1},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전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전체의 경우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9.539를 보여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²는 .652로 나타나 65.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4> 체형에 대한 인식이 전신 체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분	요인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전신 만족도	사지둘레	.504	.081	.471		6.236***
	몸매	.681	.081	.637		8.430***
	신장	-.065	.081	-.025		-.328
	상반신	.230	.081	.215		2.845**

R²=.652, 상수=3.065, F=29.539, p=.000***

p<.01, *p<.001

회귀식에 투입된 요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 검증 결과 사지둘레, 몸매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반신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H_{1.2}의 검증

H_{1.2},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상반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5>와 같이 전체의 경우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7.520을 보여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²는 .635로 나타나 6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회귀식에 투입된 요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 검증 결과 신장을 제외하고 사지둘레, 몸매, 그리고 상반신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H_{1.3}의 검증

가설 H_{1.3},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하반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

<표 5> 체형에 대한 인식이 상반신 체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분	요인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반신 만족도	사지둘레	.451	.091	.385	4.971***
	몸매	.711	.091	.607	7.845***
	신장	-.008	.091	-.007	-.089
	상반신	.442	.091	.378	4.8818**

$R^2=.635$, 상수=3.065, $F=27.520$, $p=.000$ ***

*** $p<.001$

<표 6> 체형에 대한 인식이 하반신 체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분	요인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하반신 만족도	사지둘레	.581	.080	.582	7.281***
	몸매	.496	.080	.497	6.219***
	신장	-.217	.080	-.217	-2.718**
	상반신	-.051	.080	-.051	-.641

$R^2=.610$, 상수=3.387, $F=24.870$, $p=.000$ ***

** $p<.01$, *** $p<.001$

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전체의 경우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24.870을 보여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는 .610으로 나타나 61.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회귀식에 투입된 요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 검증 결과 사지둘레, 몸매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 H₂₋₁의 검증

가설 H₂₋₁,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심미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7>과 같이 전체의 경우 회귀모형은 F 값이 $p=.047$ 에서 2.447을 보여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는 .087로 나타나 8.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회귀식에 투입된 요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 검증 결과 신장에서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설 H₂₋₂의 검증

가설 H₂₋₂,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착의성에

<표 7> 체형에 대한 인식이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분	요인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심미성	사지둘레	.158	.122	.158	1.291
	몸매	.195	.122	.195	1.594
	신장	-.267	.122	-.267	-2.186*
	상반신	.110	.122	.110	.896

$R^2=.087$, 상수=-1.056E-16, $F=2.447$, $p=.047$ *

* $p<.05$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설 H₂₋₃의 검증

가설 H₂₋₃,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실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인식에 따라 체형의 만족도와 의복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설을 세워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전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 신장 요인(다리길이와 키)을 제외하고 사지둘레 요인, 몸매 요인 그리고 상반신 요인에서 길이가 길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전신체형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상반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 신장 요인(다리길이와 키)을 제외하고 사지둘레 요인, 몸매 요인 그리고 상반신 요인에서 길이가 길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상반신 체형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셋째,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하반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 상반신 요인을 제외하고 사지둘레 요인, 몸매 요인 그리고 신장 요인에서 길이가 길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하반신 체형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

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체형에 대한 인식은 체형 만족도의 선행변수로서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우미(199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체형에 대한 인식이 전신 체형, 상반신 체형, 그리고 하반신 체형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데, 전신 체형의 만족도와 상반신 만족도에서는 신장(다리길이와 키)요인이, 하반신 만족도에서는 상반신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반신 만족도에서 신장 요인은 상반신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또한 하반신 만족도에서는 상반신 요인은 하반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신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신장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마 응답자들의 실제 평균 키가 161.9cm에 이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의복행동 중 심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신장 요인은 심미성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키나 다리의 길이가 길수록 의복의 무늬, 질감, 디자인 및 스타일 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정숙, 1984; 김양진, 1992)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을 가능한 의복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체형 중 키와 다리길이가 길다고 인식할수록 심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의복행동 중 착의성과 실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마 응답자들의 체형이 대부분 <표 1>과 같이 정상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정상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는 비만체형 등과 함께 연구하여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연구대상을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둘째, 의복행동을 선행연구의 명확한 측정항목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임경복(1997)의 의복만족도의 측정항목을 의복행동의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

로 체형에 대한 인식의 세분화를 통하여 이들이 체형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인식에 따른 만족과 행동과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애란, 강혜원. (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관계: 의복의 수용, 신분상정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45-52.
-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 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 김양진.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숙. (1984).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도의 상관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 박우미, 유병의. (1998). 여고생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의 지역별 비교. *복식*, 36, 205-217.
-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측정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59-70.
- 심정희. (2003). 중년 여성의 체형에 대한 자기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7(1), 18-28.
- 이영운, 강혜원.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 임경복. (1997).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2), 195-205.
- 정삼호. (1988).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가정문화논총*, 2, 61-83.
- 정옥임. (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 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53-162.
- 정재은, 이순원.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 최유미, 손희순. (1997).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신체 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31, 119-130.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 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

- 302.
- 허갑범. (1990). 영양과 관련된 질환의 현황과 대책. *한국영양학회지*, 23(3), 197.
- 中川早苗. (1989). 女子學生の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聯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0, 11.
- Carron, A. V., & Witzel, H. D. (1975). Comparisons of personality for selected groups fifteen-year old 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0, 727-734.
- Davis, L. L. (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1, 199-205.
- Horn, M. J., & Gruel, L. M. (1981). *The second skin*. Boston, MA: Houghton Mifflin.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 Labat, K. L., &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43-48.
- Labat, K. L. (1988).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 to Wear Clot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 McLean, F. 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ha University, Utha.
- Moses, M., Banilvy, M. M., & Liishitz, F. (1989). Fear of obesity among adolesent girls. *Pediateles*, 83(3), 393.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Secord, P. F., & Jourard, S. C. (1974). *Fundamentals of Counseling*. Boston: Houghton Mofflin.
- Shim, S., Kotsiopulos, A., & Knoll, D. S. (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3), 5-44.
- Tucker, L. A. (198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matotype and body vathexis of collage males. *Psychological Report*, 50, 983-989.